

# 가을바람과 국가무형문화재 즐거볼까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9월 전국 공개행사 풍성... 전시·무관객·최소관람으로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9월 전국 각지에서 총 21건의 공개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혹은 최소관람 공연으로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총 13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돼 있다. 궁중음식연구원에서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차리던 음식을 재현한 '조선왕조궁중음식' 연합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는 왕실의 변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나쁜 기운을 흠으로 풀어내는 '살풀이춤' 연합 공개행사가 열린다.

성균관 대성전에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 의식인 '석전대제 추가', 사직단에서는 땅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인 '사직대제'와 조선시대 제사를 지낼 때 무용과 노래와 악기를 사용해 연주하

는 음악인 '종묘제례악' 연합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고원각자연구원에서는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긴 목각판과 그 시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각자장'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판소리' 단독 및 연합 공개행사가 열린다.

승복을 입고 추는 춤으로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승무', 장구반주에 맞춰 독주형태로 연주하는 '거문고산조' 공개행사도 열린 예정이다.

경기 과주 영집공시박물관에서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과 그 기능을 지닌 장인을 말하는 '공시장' 공개행사가 열린다.

강원 강릉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는 대표적인 영동농악의 하나로 농사의 고달픔을 잊고 서로의 화합과 마을의 단합을 도모하는 '강릉농악'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북도 임실군 청운 전통한지공방에서는 탁나무를 주재료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으로 전통한지를 만드는 '한지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향제줄풍류 전수교육관에서는 여러 음악이 조곡과 같이 구성된 합주곡인 현악연성회상을 일컫는 '구례향제줄풍류' 공개행사가 열린다.

부산 지역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민속예술관 야외 놀이마당에서는 그 해 농사를 짐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토착화된 놀이인 '동래야류', 중수원에서는 여러 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나타내는 '자수장'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울산 중구문화의전당에서는 '판소리', 제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는 우리 민족 의생활에서 필수품목의 하나였던 것을 만드는 '갓일'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스



##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호응'

전북대박물관, 완주고산초사 문화 체험 진행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홍찬석)이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우수 자원을 지역사회와 소통·공유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찾아가는 박물관'은 2019년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지역 학생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문화 체험이다.

올해는 지난 26일 완주고산초등학교를 찾아 방영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우리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체험에서는 전북대박물관의 대표 기록유산인 고문서를 복제해 선보였고, 또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도슨트 시간을 통해 고문서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선

현들의 삶의 모습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능화판 찍기, 목판 찍기, 사진지문양 찍기 등 우리 전통 인쇄문화 체험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동지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완주 고산초등학교 관계자는 "전북대박물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체험을 학교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찬석 박물관장은 "지속적인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보다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거점국립대로서 지역 내 문화교육 수혜층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지역 영상산업 발전·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정읍시·전주영상위원회

영화 촬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와 (사)전주영상위원회가 지역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27일 (사)전주영상위원회와 영화 제작 유치 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사)전주영상위원회 영화감독 박홍식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와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 촬영 유치 지원과 영상 관련 인재 육성, 영상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됐다.

그간 전북 시·군 로케이션 촬영과 영상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전북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을 다지고 다양한 장르의 국내의 영상물이 정읍에서 제작·촬영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과 유치 활동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영상산업 홍보와 촬영지 지원 등 영화 촬영 유치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작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영상물을 통해 아름다운



정읍시는 지난 27일 (사)전주영상위원회와 영화제작 유치 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영화를 통해 정읍의 주요 관광명소가 널리 알려질지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 영상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브랜드 강화와 관광명소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KBS2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경찰수업' 촬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김대환기자

## 군산대 정혜연 교수, 피아노 독주회

9월 3일 서울 예술의전당서 진행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정혜연 교수의 피아노 독주회가 9월 3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정혜연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4번, 슈베르트 4개의 즉흥곡 op. 90,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슈만의 빈 사육제의 어릿광대 모음곡 등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작곡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좌석 띄어앉기 등 예술의전당 공연장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전체 좌석의 50%만 오픈될 예정이고, 공연 상세 안내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문의는 조인클래식(02-525-6162)으로 하면 되고, 티켓예매는 예술의전당(www.sac.or.kr) 및 인터파크(www.ticket.interpark.com(전석 2만원))에서 가능하다.

/군산=남현봉기자

정혜연 피아노 독주회

**HyeYeon Jung**

PIANO RECITAL

W. A. Mozart  
Piano Sonata K. 282 in E-flat major

F. Schubert  
4 Impromptus, Op. 90

L. Albeniz  
Asturias

R. Schumann  
Fantasiestücke aus Opus 36

2021. 9. 3. Fri. 7:30PM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문의: JON CLASSIC | 후원: 02-525-6162

티켓: 20,000원 (전석 2만원)

티켓: 인터파크 | 후원: 인터파크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